

금주의 칼럼

늦은 나이란 없다

일본의 한적한 시골인 미야자키현의 하나카게 마을에는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곳의 담임인 조비 마쓰(Joby Matsu) 목사님은 90세가 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때가 86세였습니다. 10살 때부터 주님을 만난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사님이 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든이 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고대 신화가 시작된 이곳 우상의 땅에 교회를 지어라.'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 동기가 300평의 교회 부지를 기증했고, 아무 관련도 없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후불로 받겠다며 자진해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금액이 부족해 몇 번이나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됐고, 돈 한 푼 없이 4년 만에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행사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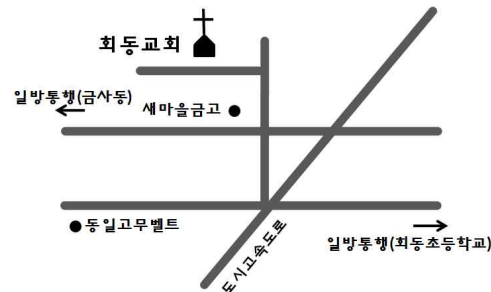
----나침판---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롱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 선교부)
- 충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 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 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기 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 인도 : 배영조 목사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1장
교 독 문	29문 (시편 65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197장
기 도	최진수 장로
성 경 교 독	요한복음 4: 43-54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네 아들이 살았다
찬 송*봉헌	436장 / 봉헌
봉 헌 기도	인도자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620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2026. 8 . 23 / 제 48-34

2026 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인도: 배영조목사

작은집자가 찬양

[1:45-2:05]

입 레: 인도자

찬 송: 93장 / 369장

기 도: 김삼예 권사 (다음: 남선이 권사)

성 경: 시편 68: 16-19

특 송: 4여전도회 (다음: 살롬회2)

말 씀: 짐을 나누어 지라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요한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8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오세영(온천) 오정수(재송)
안 내 / 식 당	정경자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2일) 2주(9일) 3주(16일) 4주(23일) 5주(30일)
기 도	7,8구역 9,10구역 1,2구역 3,4구역 5,6구역
주일예배	최진수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주일오후	김경애 백운자 이봉순 김삼예 남선이
삼 일 밤	합심기도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1 구역장모임: 다음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 2 생명의 양식란: 가정사역에 대한 내용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숙독바람
 - 3 행사: 1) 구역장모임: 8월 30일
2) 기아대책: 전국 후원이사 세미나, 8월 31일 청주
3) 동래시찰회행사: 8월 31-9월 11일
4) 제직회: 9월 첫째 주
 - 4 특송: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살롬회(남) /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살롬회(여) / 자원자/ 순으로 진행
 - 5 선교소식: 1) 서현아 선교사 입국, 오늘 본교회 예배 참석하심
 - 6 동부산노회: 동부산 임시노회, 8월26일(수) 오전 10:30
장소: 안디옥 교회당
- # 등록교우: 지난주 등록교우
26-02 정원일/ 남/ 2남전도회 소속/ 010-3466-2404/

교역자 여름 휴가

박옥주 전도사: 8월 10일(월)부터 한주간
허춘성 전도사: 8월 17일(월)부터 한주간
배영조 목사: 9월 1일 - 11일

동래 시찰회 행사

행사명: 종교개혁지 탐방 일시: 8월 31-9월 11일

[독일을 중심한 인접한 4개국 종교개혁지 탐방]

시찰회에서 26명 참석 [회동교회: 배목사부부,오장로부부 참석]

전도팀: 전도팀 전도는 7,8월은 쉽니다.

8월 행사 안내

* 여름행사: 주일학교 캠프 및 수련회	* 기아대책: 전국 후원이사 세미나 8월 31일
* 구역모임: 8월 구역모임은 쉽니다.	장소: 청주
* 경배와 찬양: 둘째주	* 동래시찰회행사: 8월31일부터-9월 11일
* 전도회 월례회: 셋째주일	* 전도팀 전도: 첫째주, 셋째주 전도
* 구역장모임: 8월 30일 3층 교육관	1교구/ 2교구 (7,8월은 쉽니다)
*교역자 휴가: 박전도사- 8월 10일부터	* 여름행사 준비기도회: 각 주일학교
허전도사: 8월 17일부터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7,8월은 쉽)
담임목사: 9월 1일부터	* 새가족부: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강병옥*박옥주 박상재*배성령 이병주 한성희 무명
- ◆**감 사:** 강병옥*박옥주 김은수*김은숙 배영광 무명1 무명2
- ◆**선 교:** 3여전도회(5) 이병주(2) 김태호 배영조*김옥단 강병옥*박옥주 김세울*백순귀 김난새*이현정 박상재*배성령
- ◆**건 축:** 박상재*배성령 강병옥*박옥주 배영조*김옥단 이병주(2) 김세울*백순귀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8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2953	
2	강형순				7210	
3	이은심				6710	
4	백운자				10135	
5	김경애				4910	
2교구						
6	이봉순				2169	
7	박광자				3390	
8	이현정				9903	
9	전만주				5503	
10	김종섭				1360	

생명의 양식

08-4 자녀 축복의 중요성(2)

창세기 27:30-37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와 축복이 없이 자란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서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와 예서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과 축복이 없이 자란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 자란 사람은 야곱과 같은 '집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예서와 같은 '들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서가 장자로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 다. 그는 숙련된 사냥꾼이기에 들로 나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았 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인사했습니 다. 그러자 이삭이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서입니다."

"네가 오기 전에 누가 고기를 들고 왔길래 내가 그를 축복했 다." 예서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결국 야곱과 어머니의 계략으로 예서에게 가야 할 축복이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 문제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예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죽 한 그릇으로 판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결국 예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이 물려받을 유산의 두 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서가 장자의 유산을 놓쳐서 억울해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을 놓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구약 시대 상황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놓쳤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큰 손실 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

나중에 예서처럼 축복을 찾아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